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체 지원

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차광도포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폭염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뜨거운 하우스 지붕에 차광도포제를 발라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작물의 생육 피해를 막고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다. 총사업비 64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제곱미터(㎡)당 600원의 기준 단가를 적용해 시에서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다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재해형 규격을 갖추지 않은 비규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4월 3일까지 사업 대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팻티켓
홍보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해물마루 지방정원과 관내 주요 산책로 일원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팻티켓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무단 배변, 목줄 미착용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팻티켓 5가지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팻티켓 5가지 수칙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즉시 수거, 관리의무 준수, 맹견 책임 관리,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가속'

정읍시, 지자체-대학-직업계고 3곳과 'RISE 교육협력' MOU 청년이 머무는 정읍 조성... 교육·산업·정주 선순환 구축 나서

정읍시는 지난 20일 전북과학대학교 및 관내 직업계고 3곳과 손잡고 지자체와 대학, 고등학교를 하나로 잇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 RISE사업단을 비롯해 글로벌산업고등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칠보고등학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계고들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지자체와 대학, 고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다가오는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의 RISE 사업이 주로 지자체와 대학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것에서 나아가 직업계고까지 교육 연계 모델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 양성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향후 RISE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운영을 시



작으로 공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성과 관리와 확산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협약 사항들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관 간 공동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세부적

인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직업계고와 대학, 지역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탄탄한 인재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산업 수요에 꼭 맞는 실무형 인재 육성과 청년들의 정주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국토부 제2차관 면담... 핵심 SOC 사업 집중 건의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노을대교 조기 추진 등 요청

고창군수가 지난 19일 오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서해안 철도를 비롯한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과 노을대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이뤄진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창군은 최우선 과제로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약 110km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사업이다. 서해안철도는 단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도로사업도 함께 요청했다. △고창읍 우회도로(국도23호선) 개설 △국도22호선(공음~상하) 시설 개량 △국도77호선(동호~금평)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사업인 △무장~공음 국지도 15호선 확장사업과 △고창~담양 고속도로 연결사업도 건의에 포함됐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은 원전 인접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형 교통 인프라로서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국토부 신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교량 공법 조기 확정과 총사업비 증액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노을대교는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핵심 축으로,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코딩' 3년 연속 선정

부안군립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안군이 군단위 도서관 가운데 3년

연속 선정된 첫 사례이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코딩으로 표현해 보는 독서·소프트웨어 융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6~7월 운영 예정이며 초

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5월 중 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063-580-3047)로 문의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100세 맞은 어르신께 축하 선물

정읍시, 에어컨·전동침대 등 11종 품목 중 3종 증정 '큰 호응'

정읍시가 올해 100세를 맞이한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선물하는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기청정기, 제습기, 벽걸이 에어컨, 운수 매트, 이불 세트, 의류, 전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이등

반기, 건강식품 등 총 11종의 실용적인 품목 가운데 최대 3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자 50명 중 지난 1~2월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를 마친 29명의 어르신 가정에 이달 중 직접 방문해 물품 배달과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21명의 어르신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3kW 설치 기준 개소당 130만원

고창군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온라인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태양광 3kW 설치 기준 개소당 130만원을 지원하며 총 36개소 4680만원 규모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nr.ener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국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6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공식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창군은 주택 전기료 절감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0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5일까지 6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원순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승범 의원은 태인시장 부지 활용과 관련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였으며, 서향

경 의원은 독립유공자 박준승 선생 묘지 관리 지원 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